

세계사적 관점에서 기와의 기원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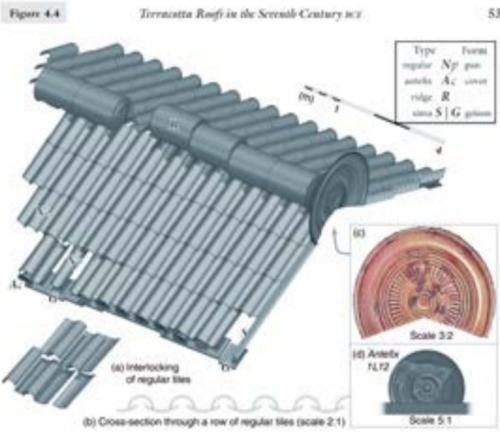
그리스 레르나의 S자형 기와 문화가 동양에 전파돼

가장 오래된 S자형 기와가 기원전 1600년경 그리스 레르나(Lerna) 지방에서 발견

성경 인물로서 유명한 아브라함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가나안에서 산 적이 있다. 그의 손자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여 이겼다고 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후 이스라엘(본명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들 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대신으로 성공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가족은 전부 이집트로 이사하여 고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게 되었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은 고센 땅을 동서남북으로 각자의 지역을 나누어 부족을 이루고 살게 되었는데, 특히 이집트 고센의 다니스(Tanis: 소안)에서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아들 단이 하나의 지파를 이루면서 번성하였다. 이집트의 최북단에서 단지파가 강력한 부족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출애굽하여 시나이반도에서 정착을 중심으로 진을 칠 때 4군 가운데 일명 북군으로서 북쪽을 담당한 것이다. 단지파는 고센 땅의 북부 이집트 다니스(Tanis) 즉 소안(Zoan)을 성읍으로 삼고 지중해 연안국과 교역을 하였는데, 이집트에 거주한 지 약 200년이 지나서 히스스 왕조가 들어선 기원전 1674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에 양들과 기와를 실어 지중해 맞은편에 있는 그리스 연안으로 왕래하며 무역에 힘썼다.

단지파에 의해서 최초로 창안된 이집트에서 생산된 S자형 기와는 교역품목이 아



BC 7세기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 신전의 지붕(테라코타terracotta: 점도를 구운 것) 출처: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05420292>



기원전 7세기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 신전 복원도



헤라 신전에서 88올림픽 성화를 채화하는 장면

니었다. 양들을 배에 실어다가 그리스 연안(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하선한 후, 양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때 양들이 담장을 뛰어넘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수단으로 S자형의 미끄러판을 고안하여 담장 위에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지중해 풍의 스페니쉬 S자 기와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 펠로폰네소스반도의 남쪽에 있는 레르나(Lerna)에서 발굴된 담장 위에 얹어놓은 고대 S자형 기와는, 기원전 1600년경 크레타 문명을 받아들인 후 활발한 해상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미케네 문명시대로 연대기를 확정할 수 있었으나, 그 기와의 제작자는 그리스 본토 사람이 아니고 양을 치는 어떤 외국의 상인이라고 고고학자들의 한결같은 결론이다. 그리고 고대 S자형 기와 담장 주변에 이집트

에서 유입된 주걱을 식기류와 숟가락 등이 함께 발견된다는 점이다.

미케네 말기 BC 1250년경에 레르나(Lerna)의 S자형 기와 담장은 버려지게 되는데, 이 시기는 도리아의 남하와 맞물려 단지파 민족이 삼상 사망(BC1248년) 직후 이스라엘의 소라 땅을 떠나 동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던 때와 일치한다.

BC 7세기 헤라신전 지붕에 레르나 S자형 기와 형식을 재현하다

헤라신전(Hera神廟, 그리스어: Ηραϊον Ολυμπίας, 영어: Temple of Hera) 또는 헤라이온(영어: Heraion)은 그리스 올림피아에 위치한 고대 그리스의 신전이다. 올림포스 12신 중 한 명이자 여신인 헤라(제우스의 아내)를 모시기 위해 지어졌다. 기원전 500년경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찍이 기원전 4세기 초에 지진으로 파괴되면서 지금은 일부 유적만 남아 있다. 오늘날에는 올림픽 성화를 밝히는 곳으로 유명하다. - 위키백과

헤라신전의 지붕에 레르나(Lerna)의 S자형 기와(tile) 형태와 동일하게 암기와(tegula)와 수기와(imbres)로 장식되던 수막새(Antefix)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서주(西周)시대와 한국의 고조선 시대에도 헤라신전의 지붕 기와 양식과 똑같은 건축물이 있었다. 이는



서주(西周)시대 기와 파편

이스라엘의 단지파 민족의 이동 과정에서 그리스 레르나(Lerna)의 S자형 기와(tile) 문화가 동양에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지파 백성들이 알타이산맥 근교에서 기원전 13세기 중반에서 기원전 11세기 중반까지 약 2백 년간 우거하는 동안, 용족(戎族)으로 불리는 일부 단지파 사람들이 중국 내륙으로 진출하여 주(周)나라를 세웠다. 주나라의 시조가 고공단보(古公亶父)로서 본명이 단(檀)이요, 고조선의 시조 또한 단군(檀君)으로서 본명이 단(檀)인데, 히브리어 단(דן Dan: 심판자, 창세기49:16)에서 유래되었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93>

“항상 얼굴에 미소가 띠어 있다”

구세주는 누구를 봐도 아름답고, 누구를 봐도 예쁘게 보이고, 누구를 봐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는 고로 항상 얼굴에 미소가 띠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웃느냐 하면 하나님의 신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웃는 것이다. 예배할 때에도 항상 웃으면서

예배를 보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사람들을 대할 때에 웃음이 없고 남의 허물만 캐내려 하는 그런 마귀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절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피가 썩기 때문에 오래 살지를 못하는 것이다.*

이기는 삶

꾸중 듣는 바른 태도

상사들이 나에게 엄격한 요구를 하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이다. 나쁜 감정으로 이를 대하거나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상사를 대해서는 안 된다. 만나면서도 상사가 들려주는 주옥같은 경험들과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말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한다.

상사에게 헌하는 시간은 상사로부터 그의 경험과 그가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꾸중 듣는 것을 꺼려하면 상사는 나에게 소중한 경험을 들려주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또한 나에게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게 된다. 용맹한 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욕먹을 줄 알아야 큰일을 하게 된다.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함으로써 한 차원 승화된 감정 관리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이것이 조직과 상사에 대한 충성이요 바른 태도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상사의 질책을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한다면 결국 당신은 그 조직에서 독립하게 될 것이다. 고립되고 왕따가 된다는 말이다. 상사와 맞서는 것은 지는 게임이다. 조직은 늘 당신의 말보다는 상사의 말을 믿는다. 상사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줄을 잘 서서, 또는 남다른 능력이나 뛰어난 조직 관리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다. 그들은 조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당신이 상사와 마찰을 빚는다면 이유 여부를 막론하고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조직은 당신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

이다. 부하로서는 기본 나쁜 일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조직의 생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질 사나운 사람치고 남에게 대접 받는 사람은 없다. 특히 부하인 경우 참을성 없는 성격 때문에 결국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상사도 참을성 없는 부하를 경계한다.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 같아서 기피 대상이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긴장 관계다. 매우 친밀하고 화기애애한 것 같아도 한순간에 서먹해질 수 있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다.

어린 시절에는 친구끼리 코피 터지게 싸우고도 그다음 날이면 다시 어울린다. 그러나 성인들의 인간관계는 사실상 살얼음판을 밟듯 아슬아슬한 것이다. 한 번 감정의 골이 파이면 복원되기 힘들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려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도닥거리는 감정 관리가 필요하다.

소수파로서 일본의 총리에 오른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는 평생 ‘인내, 인내 또 인내, 죽어도 인내, 영구(永久) 인내’의 철학으로 살았다고 한다. 그는 비록 소수파로서 일본의 총리에 올랐지만 정적이 가장 적었던 사람으로 유명하다.

정치인이나 직장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인내의 슬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니 세상살이 자체가 인내 없이는 버텨내기 힘들다. 그러므로 직장 상사가 모질게 꾸짖을 때는 정말 나를 위하여, 내가 모르는 부분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주려고 꾸중하신다고 바꾸어 생각하면 기본 마음으로 꾸중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 계속 풍년들게 하겠다

과거 우리나라는 가뭄이나 장마, 태풍으로 인해 가을의 쌀 풍년 농사가 잘 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1981년 이후 우리나라 벼농사 평균 통계는 해마다 풍년작으로 쌀 수확량이 계속 증가해 왔다. 이처럼 여름 장마를 지지 못하게 하고, 태풍을 내륙으로 직접 불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해마다 풍년 농사로 이어져 쌀 걱정을 면하게 되고, 쌀이 남아돌자 북한에 지원하기도 했다. 이 모두가 정도령님의 풍운조화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는 덕분이다.



▲ 1981년 이후 계속되는 가을 풍년 쌀농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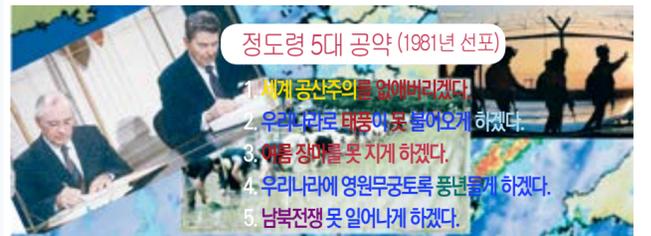
자연을 상대로 1차 산업을 하는 모든 농업과 수산업, 임업 등은 적당한 물과 바람, 온도, 일조량 등 기후조건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농사를 잘 지었다 해도 장마나 태풍, 그리고 가뭄이나 냉해 등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의 혜택을 과거에는 하늘 탓으로 돌리고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모든 예언의 말씀

처럼 구세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한민족 가운데서 출현하여 다섯 가지 공약의 축복 말씀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최고 부자 나라가 된다고 하였으니 이보다 큰 행운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국과 세계적인 이상 기후 변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만 4계절 큰 피해 없

이 잘 살고 있는 것을 보아 정도령님의 5대 공약 실행을 더욱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격양유록에는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행하는 분이 정도령이며, 그 증표로 '화우로 삼풍해인'을 가지고 나온다고 예언하고 있다. 삼국유사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천부인 3개를 받아와 장수 풍백(風伯), 운사(雲師), 우사(雨師)에게 오사(곡식 · 수명 · 질병 · 형벌 · 선악)를 주관하여 다스리게 했다는 것처럼, 장수 풍백, 운사, 우사는 바람과 구름과 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한다. 구세진인 정도령의 풍운조화 능력은 바로 한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계승되어왔다는 증거다.

一行 徐輔睦



정도령 5대 공약 (1981년 선포)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불 들어오게 하겠다.
3. 이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영원무궁토록 풍년 풍작을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

20세기 후반에 정도령님의 《5대 공약》이 선포된 지 어언 44년이 지난 오늘날 지구촌의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 가뭄과 산불 그리고 홍수 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도령의 5대 공약 가운데 기후와 관련된 3가지 공약을 주시할 필요가 있었다. 태풍의 진로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가 하면 소멸시키는 능력과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할 뿐만 아니라 비를 오게 하고 못 오게 하는 능력 그리고 풍년들게 하는 능력을 정도령이 갖추고 계시기에, 기후와 관련된 3가지 공약이 44년째 우리나라에서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민족의 예언서 격양유록에는 정도령이 풍운조화를 임의로 구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